

韓國과 日本 北海道에서의 農地利用에 관한 調查研究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Farmland Uses in Korea and Hokkaido of Japan

金 基 星* · 梅 田 安 治** · 崔 禮 煥***
Kim, Ki Sung · Uneda, Yasuharu · Choi, Ye Hwan

Summary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various statistical data on the actual state of farmland uses given in Korea and Hokkaido of Japa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1. The rate of farmland uses was marked 118% and 99% in Korea and Hokkaido of Japan in 1988, respectively. That of Korea was higher than that of Hokkaido of Japan. The tendency of the value for Korea has been decreased since the value was shown peak in 1980, but that of the value for Hokkaido was found gradually the increased value. It was analyzed that the reason why the value was decreased in Korea was referred to avoid the crops culture, and the reason why the value was increased in Hokkaido was due to increase the area of pasture.

2. The farmland use system according to region were applied to be the mixing pattern of rice culture and dry-field crops in East region of Korea and the type of mainly rice culture in West region. The pattern of farmland use system was used to be performed mainly the rice culture in Central region, the mixing type of rice cluture and dry-field crops in South region, and the agriculture of mainly dry-field crops and dairy in East-North region in Hokkaido.

3. In the light of the rate of planting, the rate of rice culture and dry-field crops were 49% and 51% in Korea, respectively. As the values were 13% and 87% in Hokkaido of Japan, respectively, the dry-field crops attained the superiority. The main crop kinds was shown the rice culture in Korea and the feed plant in Hokkaido of Japan, respectively.

4. In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there are much differences in agricultural style and industria-

* 日本 北海道大學 大學院

** 日本 北海道大學 農學部

*** 江原大學校 農科大學

키워드 : 北海道 農業, 農地利用率, 作付面積, 作目,
耕種農業

lization processes in both country Korea and Japan. Especially much more differences were evident from farmland use system of Hokkaido Island where had unique agricultural style in Japan

I. 緒 論

近年에 이르러 韓國에서도 都市化 傾向이 加速化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農業用 土地를 크게 壓迫하고 있으며, 韓國 農業 역시 여러가지 條件이 變化함으로써 農地의 利用 形態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農業은 自然環境 條件에 크게 支配되었고 土地利用도 다양화되지 못하였으나 현재의 農業은 生産環境 調節技術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土地利用도 單純한 利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만큼 作物의 栽培條件, 作業條件 등 제반 條件의 整備가 必要하게 된다.

이와 같이 農業은 發展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관련되기 마련이다. 이제 韓國에서도 農地는 生産條件만이 아닌 國土와 環境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한국에서 農村地域 發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農漁村 定住 生活圈 開發事業의 핵심사항인 農村의 長期展望 이라든가 開發計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農村地域의 開發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國土의 利用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長期展望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조사 연구는 본인이 연구중인 農村計劃의 수립을 전제로 한 土地 利用 研究의 일부로서 우선 全體 國土中 農地利用에 대한 것만을 몇가지 측면에서 日本 北海道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II. 研究對象 選定 背景

自然地理的 側面에서 볼때 韓國의 山地는 中·東部를 中心으로 넓게 散在하여 國土의 약 66

%를 占하고 있고 이것의 大部分은 標高 500m 前後의 低山 또는 丘陵으로 되어 있다. 平野는 主로 西·南海斜面に 發達하여 內陸에 생긴 浸蝕盆地가 農地로 되어 있다.

韓國의 氣候는 四季가 確實히 區別되는 溫帶性 氣候를 갖고 있으며 氣溫의 年較差는 큰 편이다. 年平均 氣溫은 中北部 地域이 11℃ 정도, 南海岸이 14℃ 이상으로 南北間에 4℃ 이상의 差를 보인다. 年降水量은 中北部 地域의 경우 1000~1300mm 이며 南海岸과 濟州道의 경우 1400mm 이상이다. 특히 6~8월에 年降水量의 40~60%가 集中되고 있다.

北海道는 아시아 東部に 위치하는 日本 最北의 섬으로 中央部에는 石狩山地가 形成되어 있고, 中央高地에는 火山이 散在해 있다. 山間部 또는 海岸線에는 平野가 發達해 있다. 北海道는 火山灰土壤과 重粘土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은 日本의 最大 食糧基地로 되어 있다.

일본 北海道의 氣候는 年平均 氣溫이 약 5~9℃로서, 섬이지만 內陸部는 大陸性 氣候를 보여 氣溫의 年較差, 日較差가 큰 편이며 降水量은 800~1200mm 정도이다.

土地利用 側面에서 볼때 韓國의 國土面積은 992万ha로서 이 가운데 山地가 약 66%이며, 農地는 약 22%이다. 이같이 林野와 農地가 大部分을 占하여 比較的 단조로운 土地利用 形態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土地利用率 提高에 큰 制約이 되고 있다.

北海道는 6:4의 比率로 山地가 平野地보다 많다. 또한 集約的 土地利用이 可能한 標高 300m 미만의 地域은 61.8%로서 좋은 土地條件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自然條件과 土地利用 측면에서 살펴볼때 韓國과 일본 北海道間에는 몇가지 類似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北海道는 크게 4개의 農業地帶로 나누어져 있어 日本의 他地域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土地利用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즉 北海道의 中部와 南部는 畜, 田作 中心인 韓國의 土地利用과 대단히 類似한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中部와 北部는 粗放的이고 大規模인 西歐의 土地利用形態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의 米作地帶에 속하고 이외의 栽培 作目도 비슷하며 開發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計劃農村이 많으므로 土地利用에 대한 比較 研究 對象으로서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III. 調査研究 範圍 및 方法

調査研究 對象은 全國土 面積 99,222km²인 韓國과 日本 全國土 面積의 22.1%인 83,409km²의 면적을 가진 北海道로 하였다. 여기서 日本 全體를 對象으로 하지 않은 연유는 日本列島가 너무 길어 氣候, 植生 등이 복잡할 뿐 아니라 土地利用에 있어서도 모델로 삼을만한 要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비교 연구 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나 네델란드와 미

국의 뉴욕주, 미시건주, 텍사스주, 콜로라도주를 대상으로 土地利用形態를 比較, 研究한 事例가 있다.

調査研究 內容은 일단 農地利用에만 국한시켰으며 農地利用率, 地域別, 農地利用 狀況, 作目別 作付實態에 主要點을 두고 조사 연구하였다.

調査研究는 韓國의 경우 農林水産統計年報를 근거로하여 韓國의 經濟, 社會 發展이 가장 뚜렷했던 1970년부터 1988년까지의 통계를 全國의 市道別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는 農業 セン스 및 北海道 市町村別 作付面積·收穫量 調査 結果를 근거로 하여 1950년부터 1988년까지의 作付面積 栽培作目を 조사·분석하였다.

참고로 韓國 및 日本 北海道에 대한 地域區分 및 農業基盤關聯 指標를 제시하면 Fig. 1 및 Table 1과 같다.

IV. 結果 및 考察

1. 農地利用率

韓國에서는 戰後 國家經濟의 成長과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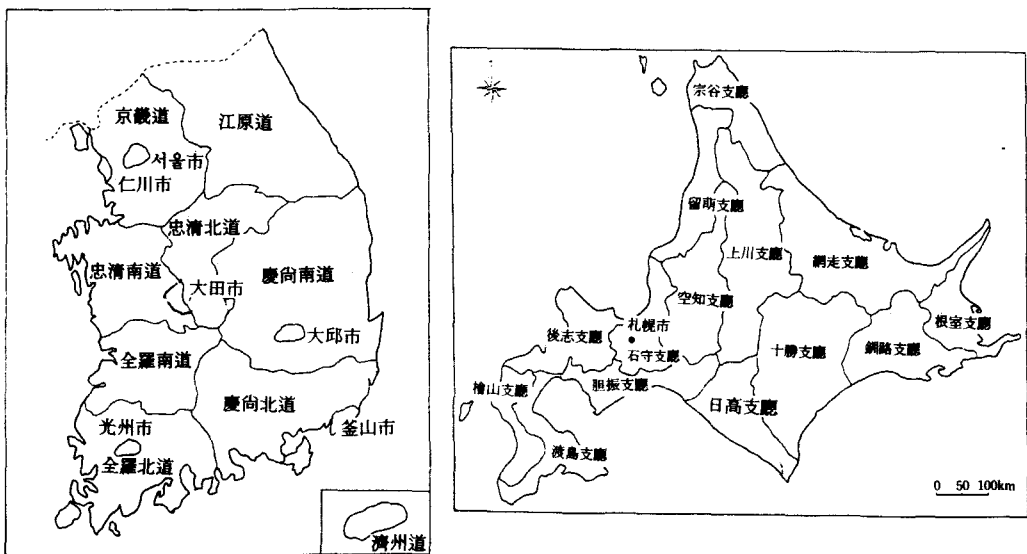


Fig. 1. 韓國과 日本 北海道의 地域區分

Table-1. 韓國과 日本 北海道의 農業基盤關聯指標 (1988)

區 分	韓 國	日本 北海道
全體面積(km ²)	99,222	83,409
農地面積(千ha)	2,138(21.6%)	1,204(14.4%)
畝 面 積(千ha)	1,358(13.7%)	246(3.0)
田 面 積(千ha)	780(7.9%)	958(11.5%)
一人當農地面積(ha)	0.05	0.2
一戶當農地面積(ha)	1.17	11.6
人 口(千人)	41,975	5,695
人口密度(人/km ²)	423.0	68.3
農家人口(千人)	7,273(17.3%)	443(7.8%)
農家戶數(千戶)	1,826	104
一戶當人口(人)	4.0	4.3

農地面積이나 作付面積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Fig. 2에서 살펴보면 農地面積은 1970年後에 총 230萬ha로서 그 中 畝은 127萬ha, 田은 103萬ha이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총 214萬ha로 減少하였는데 그 中 畝은 136萬ha, 田은 78萬ha이었다. 이와같이 畝面積이 增加하고, 田面積이 減少한 것은 米穀增産을 위한 畝의 擴大와 田의 畝轉換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에비해 作付面積은 1970년에 326萬ha이었지만 1980년에 277萬ha로, 1988년에는 253萬ha로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農地減少率을 上廻하는 값이다.

이를 畝作과 田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水稻의 作付面積은 1960년에 112萬ha이었지만, 1970년에는 120萬ha, 1988년에는 126萬ha로 增加하는 傾向을 보인데 비해 田作物의 作付面積은 1970년의 206萬ha에서 1988년에는 127萬ha로 크게 減少하였다. 이의 주된 원인은 麥類, 豆類, 雜穀等 主要 田作物의 作付面積이 1970년의 150萬ha에서 1988년에는 48萬ha로 크게 減少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日本 北海道의 農地面積은 持續的인 農地開發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增加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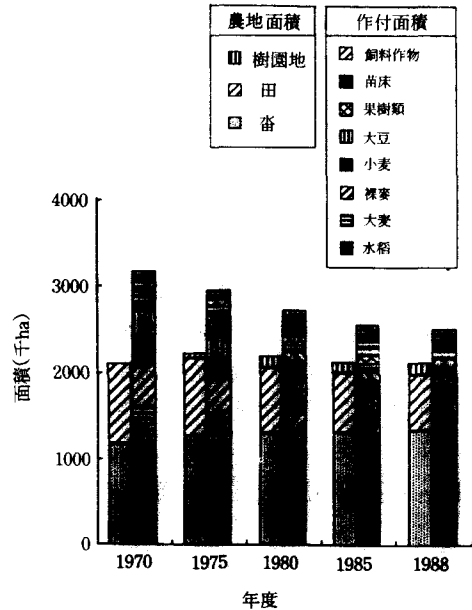


Fig. 2. 韓國의 農地面積과 作付面積變化

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Fig. 3에서 살펴보면 農地面積은 1950년에 80萬ha이었지만 1988년에는 120萬ha에 達하여 50%라고 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畝은 1950년의 16萬ha에서 1988년에는 25萬ha로 增加한 反面, 田은 1950년의 64萬ha에서 1988년에는 96萬ha에 達하여 田의 增加가 뚜렷하였다. 田面積 中 牧草地가 1965년까지는 10萬ha 未滿이었지만, 1988년에는 51萬ha까지 增加하여 가장 큰 增加 傾向을 보였다.

作付面積은 1960년의 94萬ha에서 1988년에는 119萬ha로 增加하고 있는데 이를 畝作과 田作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원래 日本 北海道의 水稻作은 1685년에 道南地域인 大野町에서 시작 되었으며 그후에도 道南에 限定되어 있었다. 近年에 들어서면서 石狩, 空知, 上川の 稻作地帶는 물론이고 北限地帶와 泥炭地對와 같은 稻作不適合까지 擴大되어 1965년의 23萬ha에서 1969년에는 27萬ha까지 增大되었다. 그러나 米穀의 過剩生産에 따라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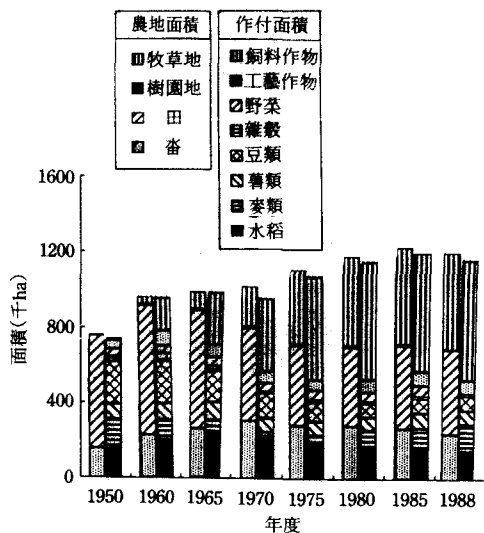


Fig. 3. 日本 北海道の 農地面積과 作付面積 變化

年부터 米穀의 生産調整이 이루어지고 1978년에는 畚利用이 再編됨에 따라 1988년에는 15만ha로서 減少傾向을 나타내었다.

이에비해 田作의 作付面積은 1960년에 49만ha이었지만 1960年代 後半부터 十勝, 釧路, 根室의 道東北 地域을 중심으로 草地面積이 大幅增加됨에 따라 1970년에는 28만ha로 減少하였다. 그後 田作物의 振興과 稻作轉換 등에 의하여 1988년에는 42만ha로서 回復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草地를 포함한 飼料作物의 土地利用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日本 北海道の 地域特性에 適合한 草地畜産의 積極的인 振興에 의하여 增加를 나타냄에 따라 1970년에 37만ha이었으나 1988년에는 60만ha에 達하여 大幅的인 增加率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나타난 農地面積과 作付面積의 變化를 기초로 하여 韓國과 日本 北海도에서의 農地利用率 變化를 분석해 보면 Fig. 4 및 Fig. 5와 같다.

이 결과에서 볼때 1988년도 경우 韓國의 農地利用率은 118%로서 日本 北海道の 農地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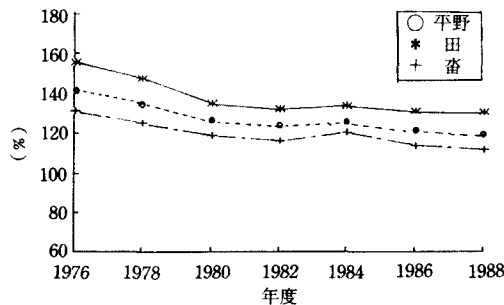


Fig. 4. 韓國의 耕地利用率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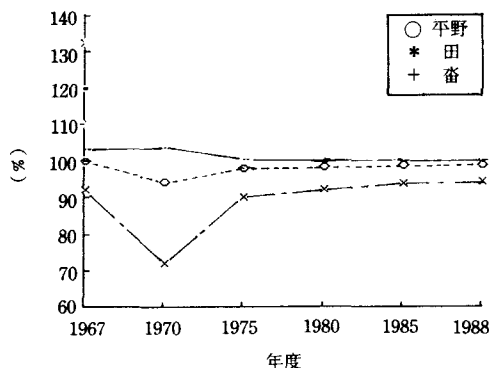


Fig. 5. 日本 北海道の 耕地利用率 變化

率 99% 보다 훨씬 높으나 韓國은 1976年 이후 계속적인 감소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日本 北海道는 1970年 이후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韓國에서 減少 傾向을 보인 要因은 農村勞働力의 감소, 낮은 所得性 등으로 인한 耕種農業의 기피에 있으나, 日本 北海道에서 的增加 要因은 酪農家의 擴大로 인한 草地 面積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美國도 社會的인 變化로 農地, 草地 및 林野가 減少하고 他目的을 위한 地目으로 變化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차 韓國에서도 米穀이 남아 돌아 가고 또 食生活의 樣相이 日本처럼 肉食, 우유 및 빵을 많이 먹는 傾向으로 變化될 경우 田畚은 草地造成이나 牧草地로 轉換되리라 展望되어 田畚面積은 減少하고 牧草地는 增加하게 되리라 라고 사려된다.

2. 地域別 農地利用 狀況

과거부터 韓國農業은 自然條件에 따라 農地利用 패턴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東部地域(江原道, 忠淸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은 山地가 많고, 西部地域(京畿道, 忠淸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은 平坦地가 많은 地域的 特性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東部地域은 水稻와 田作物의 混合的인 農地利用形態를 보이고 있으며 西部地域은 水稻中心의 農地利用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서울市가 釜山市와 같은 大都市地域에서는 農地面積이 적고 大消費地에 接하여 있기 때문에 經濟性이 높은 野菜類나 花卉類와 같은 都市近郊型 農業을 中心으로 한 農地利用 形態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나타난 1970年 이후의 作付面積 變化를 圖示하면 Fig. 6 및 Fig. 7과 같다.

Fig. 6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作付面積은 每年 減少하고 있으나 Fig. 7에서와 같이 水稻 作付 面積은 增加하고 있다. 持續的인 農業振興施策 等の 推進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作付面積이 減少하고 있는 것은 工業用土地와 都市用土地의 需要增加에 따른 農地의 轉用, 農業勞働力의 都市集中, 他產業에 比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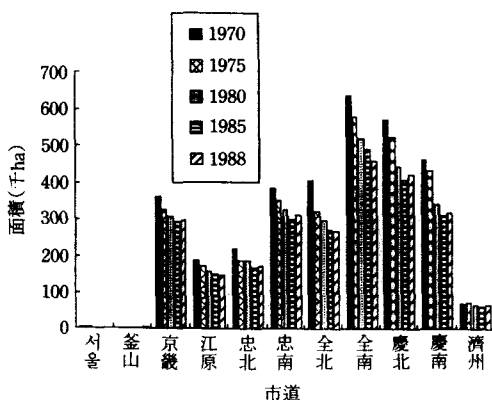


Fig. 6. 韓國의 地域別 作付面積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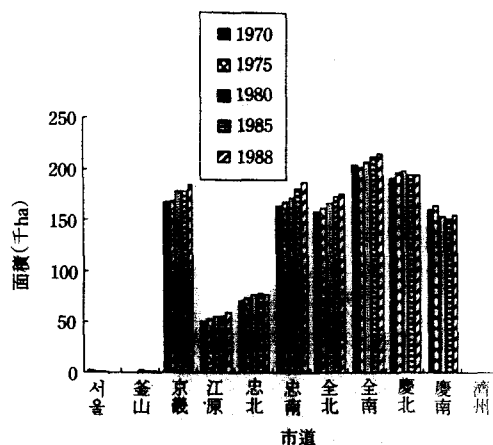


Fig. 7. 韓國의 地域別 水稻作付面積 變化

낮은 農業所得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大規模의 農地面積을 보유한 全羅南·北道와 慶尙南·北道の 南部地域에서도 이러한 要因의 影響을 크게 받아 大幅的인 農地面積의 減少를 보이고 있으며, 京畿道와 忠淸南道 地域에서도 현저한 감소 양상을 타나냈다. 이에 비해 農地面積이 비교적 적은 江原道, 忠淸北道, 濟州道 地域에서는 감소폭이 비교적 작았다.

한편 日本 北海道의 地域 構成과 地域別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北海道의 石狩, 空知, 上川, 留萌, 胆振, 日高 등은 道中央地域으로서 代表的인 水稻作 地帶이다. 특히 石狩, 空知, 上川, 地域은 石狩平野를 중심으로 農業地帶를 形成하고 있으며 多樣的인 農業生産으로 安定된 農地利用 形態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札幌市 等 大都市의 近郊에서는 經濟성 있는 野菜類 等を 栽培하고 있기 때문에 多樣하게 農地가 利用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日本北海道의 地域別, 農地利用 實態를 살펴보면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宗谷, 十勝, 釧路, 根室 등과 같은 道東北地域 및 胆振 東部, 檜山 등에서는 作付面積의 增加傾向을 後志, 上川, 空知 等에서는 큰 變化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十勝, 釧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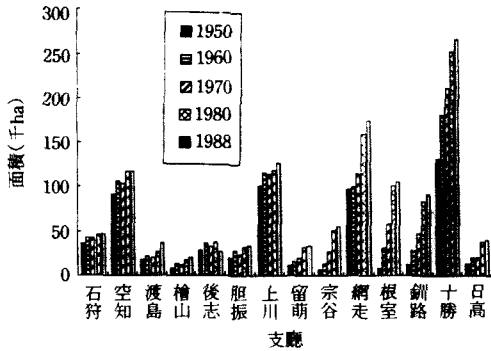


Fig. 8. 日本 北海道の 地域別 作付面積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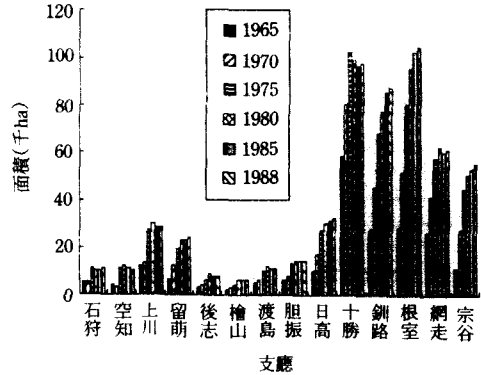


Fig. 10. 日本 北海道の 地域別 草地 面積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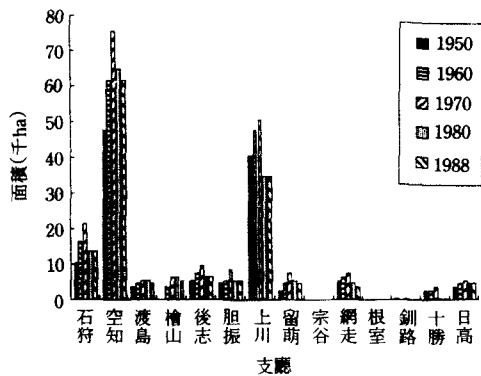


Fig. 9. 日本 北海道の 水稻作付面積 變化

根室 등 道東北 地域의 全 作付面積은 1950年에 15万ha 이었지만, 1988年에는 37万ha로 全道 作付面積의 약40%를 占하는 높은 增加率을 나타낸데 비해 札幌市와 旭川市 等 都市에서는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다. 또한 Fig. 9에서 1950년 이후 地域別 水稻作付面積을 살펴보면 石狩, 空知, 上川에 집중되어 있으나 1970年 이후 급격한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Fig. 10에서 보인 바와 같이 草地는 十勝, 釧路, 根室, 網走, 宗谷 등 道東北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近年에 이르러 草地面積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地域은 釧路, 根室, 宗谷이며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는 地域은 十勝, 網走로 나타났다.

後志, 渡島, 檜山 등 道南地域은 溫暖한 氣

候條件下에서 있으며 水稻, 감자, 果樹, 牧草 등 多樣하고 集約的인 農業이 行하여 지고 있다.

道東北地域 가운데 十勝, 網走 등은 平坦하고 廣大한 農地條件을 利用하여 小麦, 감자, 甜菜 等 大規模의 田作과 酪農을 中心으로 한 土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根室, 釧路, 宗谷 등은 大規模의 草地를 가진 酪農地帶이다. 특히 廣大한 丘陵과 泥炭地를 包含한 混合된 平野地가 많고 豊富한 土地資源을 갖고 있어 開發余地가 많은 지대로 되어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韓國과 日本 北海道에서의 경지 이용 실태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韓國의 作付面積은 모든 地域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日本 北海道の 作付面積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網走, 根室, 十勝地域에서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 졌다.

그리고 韓國과 日本 北海道の 地域別農地利用 狀況을 보면 韓國의 경우 江原道, 忠淸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등 東部の 水稻와 田作이 混合된 형태로 西部는 水稻 中心의 農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日本 北海道の 경우는 石狩, 空知, 上川, 留萌, 胆振, 日高 등 道中央地域은 水稻 中心, 後志, 渡島, 檜山 등 道南地域은 水稻와 田作의 混合, 道東北地域 中 十勝, 網走 등은 田作

中心, 根室, 釧路, 宗谷 등은 酪農 中心의 農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日本 北海道 地域의 農地利用이 韓國의 農地利用 보다 더 多樣化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 때문에 北海道가 日本의 食糧基地로서의 役割을 다 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作目別 作付實態

韓國의 農業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新品種의 開發, 栽培技術의 改善, 強力한 增產施策의 推進 等에 힘입어 米穀이나 麥類와 같은 食糧作物은 물론 대부분의 作物에 있어서 生産性의 향상을 가져왔다. 더우기 1980年代에는 栽培技術의 改善, 비닐하우스 農法의 擴大普及, 大規模의 農業用水 開發, 營農의 機械化, 持續的인 增產施策의 推進에 의하여 현저한 生産性 向上이 이루어 졌다.

韓國에서의 作目別 作付比率 變化를 살펴보면 Fig. 11에서 볼 수 있듯이 水稻作付比率은 1970年의 36%에서 1988년에는 49%로써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데 비해, 田作物 作付比率은 64%에서 5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田作物 作付比率 變化樣相을 보면 1980년부터 果樹類의 재배비율이 현저히 늘어난데 비해 小麥과 裸麥의 재배 비율은 오히려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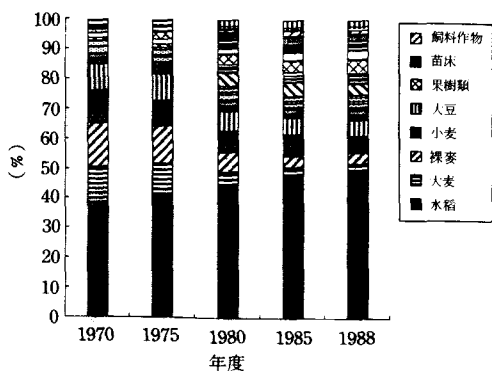


Fig. 11. 韓國의 作目別 作付比率 變化

그리고 1960年 이후 韓國의 主要 田作物에 대한 作付面積 變化는 Fig. 12에서 보는바와 같다. 여기서 麥類, 豆類, 雜穀, 薯類 등 主要 田作物은 모두 1965年을 頂點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바, 이는 田作物의 作付比率 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韓國에서의 作目別 作付比率變化에 있어 水稻의 作付比率이 증가 경향을 보인 원인을 畚의 作付面積 확대보다 田의 作付面積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이는 Fig. 2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한편, 日本, 北海道 農業은 지속적인 生産性 向上을 위해 稻作, 田作을 포함한 綜合的인 農地利用型 農業을 추구함과 동시에 生産基盤의 整備, 地域 特性에 適合한 作目的 導入, 作付體系의 改善 等を 추진하고 있다.

日本 北海道에서의 作目別 作付比率 變化를 Fig. 13에서 살펴볼때 水稻作付比率은 1950년에 21% 정도 였으나 1970年의 29%를 頂點으로 점차 감소하여 1988년에는 13% 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해 田作物 作付比率은 1950年의 79%에서 1970년에 71%, 그리고 1985년에는 87%를 차지하여 日本 北海道는 田作 中心의 農業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두드러진 점은 小麥과 小豆의 作付比率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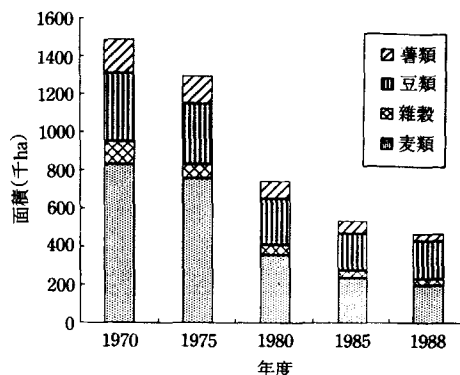


Fig. 12. 韓國의 主要田作物 作付面積 變化

1960년부터는 飼料作物 作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 1975년 이후에는 49%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飼料作物 作付比率 增加는 결국 日本 北海道の 酪農業 發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日本의 경제발전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는 곧 日本人들의 食生活 패턴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指標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日本 北海道에서 主要 田作物인 麦類, 豆類, 薯類, 甜菜에 대한 作付面積 變化를 Fig. 14에서 살펴보면 1960년 이후 主要 田作物의 재배는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75년을 전환점으로 다시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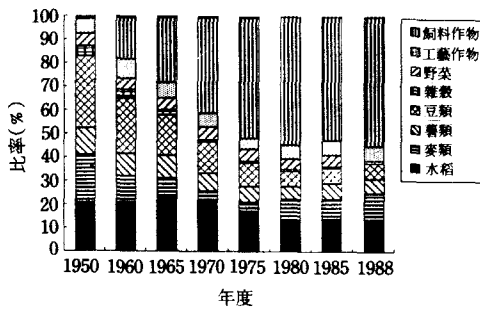


Fig. 13. 日本 北海道の 作目別 作付比率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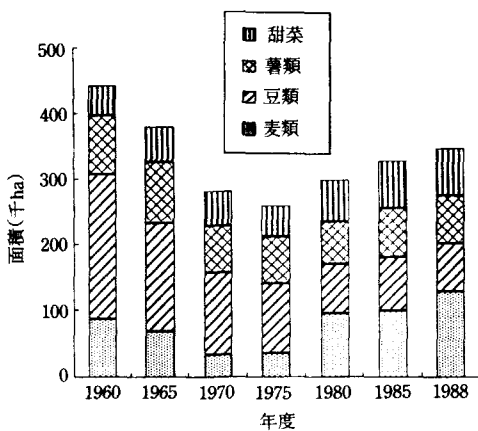


Fig. 14. 日本 北海道の 主要 田作物 作付面積 變化

이러한 變化樣相은 豆類와 麥類의 作付面積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韓國과 日本 北海道에서의 作目別 農地利用 實態를 조사 분석해본 바, 作付比率은 기준으로 할 때 韓國에서의 주된 作目을 水稻라 할 수 있으며, 日本 北海道에서는 飼料作物이라 할 수 있으나, 水稻栽培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韓國과 日本 北海道에서 栽培되고 있는 主要 共通作目은 水稻, 小麥, 大豆, 飼料作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最近에 韓國은 米穀의 剩餘로 畚作은 作付面積을 유지하면서 田作에서 減少추세에 있는 小麥, 大頭 등을 增加시켜서 業 均衡을 유지하는 農業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結 論

이 研究는 韓國과 日本 北海道 地域에서의 農地利用 實態를 各種 資料로부터 調査·分析한 것으로서 얻어진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의 農地利用率은 1988년의 경우 118%로서 日本 北海道の 99% 보다 훨씬 높았으나 1976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며 이와반대로 日本 北海도는 점진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韓國에서의 減少 原因은 耕種農業의 기피에 있고 日本 北海道에서의 增加 原因은 草地面積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地域別 農地利用 狀況을 보면 韓國의 경우 東部는 水稻와 田作이 混合된 형태로, 西部는 水稻 중심의 農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日本 北海道の 경우 道中央地域은 水稻 중심, 道南地域은 水稻와 田作의 混合, 道東北地域은 田作과 酪農 중심의 農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에서 日本 北海도는 韓國 보다 다양한 農地利用 形態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作付比率을 基準으로 할 때 韓國에서는 水稻와 田作의 비율이 각각 49와 51%였으나, 日本 北海道에서는 그것들의 비율이 13%와 87

%로서 田作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다. 주된栽培作物을 韓國의 경우, 水稻, 日本 北海道の 경우는 飼料作物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結果들을 종합해 볼 때, 産業化,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듯이 韓國과 日本의 農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日本 内에서도 特異한 農業形態를 보이고 있는 北海道 地域의 農地利用과는 相異한 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韓國도 앞으로 田畝의 상당한 作付面積이 日本처럼 草地로 轉換되리라 展望 된다.

參 考 文 獻

1. Best, R. H. 1979. Land Use Structure and change in the EEG. Town Planning Review 50(4), 1979.
2. Flevoland, 1978. Flevoland, Facts and Figures, Publisher : Rijksdienst voor de Ijsselmeer Polders. Lelystad. The Netherlands 1978.
3.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韓國農政 40年史 (上, 下).
4. Held R. B. et al., 1984, Rural Land Uses and Planning,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mpany Inc.
5. 北農會, 1982, 北海道農業技術研究史.
6. 北海道, 1989, 1990, 北海道農業の動向.
7. 北海道, 1989, 1990, 北海道農業統計表.
8. 北海道協同組合通信社, 1981, 北海道の農業.
9. 相川哲夫, 1985, 農村空間整備論, 農林統計協會.
10. 窪谷順次, 1988, 現代地域計劃論, 農村統計協會.
11. 農政調査委員會, 1982, 世界の農地・農村整備.
12. 農林水産省, 1950~1989, 都道府県別統計劃 (北海道)
13. 農林水産部, 1960~1989, 農林水産統計年報.
14. Wolman M. G. et. al., 1987, Land Transformation in Agriculture, John Wiley & Sons Ltd.

(接受日字 : 1991. 8. 9)